

증례Ⅵ - 5

상악 전치부 결손의 immediate loading implant의 증례

서예준, 한동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과거의 임플란트의 개념은 기존의 자연치 발치 후, 발치와의 연조직과 치조골이 완전히 치유된 후에 비로소 drilling하여 식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제한 조건이 있기는 하나 발치 직후에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는 technique이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이와함께 임플란트 식립후 바로 인상을 채득후 24시간 이내에 상부 보철물을 연결해주어 기능하게 하는 immediate loading technique이 선택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환자의 외과적 처치 횟수를 줄일 뿐 아니라 환자의 기능과 심미의 만족도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고 빠른 임플란트 치료를 가능케 하며 잔존치조제의 골흡수를 최소화하는 등 장점이 많은 치료로 생각되어진다.

즉시 임플란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확히 하기 용이
2. 발치창의 창상 치유기전이 있기 때문에 골 유착의 좋은 환경 제공
3. 치료기간 현저히 단축
4. 치조골 흡수 최소화
5. 시술을 위한 내원 횟수 감소

초기에는 성공적 임플란트 시술의 protocol은 발치 후 치유된 골조직에 임플란트를 식립 후 3-6개월간의 stress-free healing period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fixture를 submerge시키고 2차수술을 통해 보철물을 연결시키는 술식을 필수적인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쳐 시행되어지기 시작한 immediate implantation과 immediate loading technique이 성공적으로 시술되어짐에 따라 변화되었다. 완전한 stress-free한 상태가 바람직하긴 하나 이는 1993년에 brunski et al에 의해 발표되어진 임플란트 자체에 100 μ m이상의 움직임만 가해지지 않는다면 임플란트의 osseointegration에는 문제가 없다는 실험적 결과, 즉 "acceptable micromotion"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증례 보고를 통해서 상악 전치부 결손시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통한 수복의 성공적인 예를 발표하고자 한다.